



제목	Sasanian Persia: The Rise and Fall of 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3. 4. 15.
저자	Touraj Daryaee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780763781

내용 요약

이 책은 로마제국의 상대국으로서만 언급된 사산제국에 대한 개설서이다. 이란 문명의 근저이자 로마와 이슬람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산제국에 대해 복합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설명을 동반하고 있다. 저자는 사산제국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비서구인들은 역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산제국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경시되거나 왜곡되어 왔는데, 그 주체는 아테네인, 알렉산드로스, 로마인, 십자군, 영국, 러시아, 오늘날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들이 간과했던 시각, 이란의 입장에서 본 세계사라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또 사산제국이 타락하여 이슬람으로의 '준비된 길'로 나아갔다는 식의 목적론적 역사관도 배격하고 있다. 이슬람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이란 뿐 아니라 아랍 세계에 최근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란의 정치사, 사회사,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유대교, 크리스티교 등의 종교사, 문화, 경제와 행정 등 다섯 부분에 걸쳐 사산제국 자체의 기록들을 전하고 있다. 또 사산제국에 대해 적대적인 그리스와 로마의 사료를 포용하여 로마사에서 보는 사산제국에 대한 설명도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사산의 역사에 관한 150쪽의 실제 사료를 첨가한 것도 의의가 있다. 다만 저자는 애매모호한 용어보다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령 'Iranshahr'라는 용어는 '더 위대한 이란(Greater Iran)'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